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2월 소비자 심리지수, 6개월만에 최고치
- WSJ: 미 고용 약세와 해고로 노동 사정 순탄치 않아

[미국 금융]

- Bloomberg: 7만 불 아래 비트코인, 더 악화할 수 있다

[주택]

- Bloomberg: 모기지율 상승세...30년 융자 6.11%

[자동차]

- Bloomberg: 현재 미국에서 신차 가격이 비싼 이유는?
- CNBC: 미 전기차는 후퇴...중국은 글로벌 지배력 강화
- Bloomberg: 테슬라, 뉴욕 애리조나 아이다호에 태양전지 생산 확대

[인공지능]

- Bloomberg: 빅테크 기업들 올해 AI에 6천5백억 불 투자... AI 경쟁
- CNBC: 최근 빅테크들의 시가 총액 1조 달러 증발

[에너지]

- Bloomberg: 오일가 상승세...트레이더들, 미국과 이란 회담 주목

[미국 경제]

Bloomberg: US Consumer Sentiment Unexpectedly Rises to a Six-Month Hig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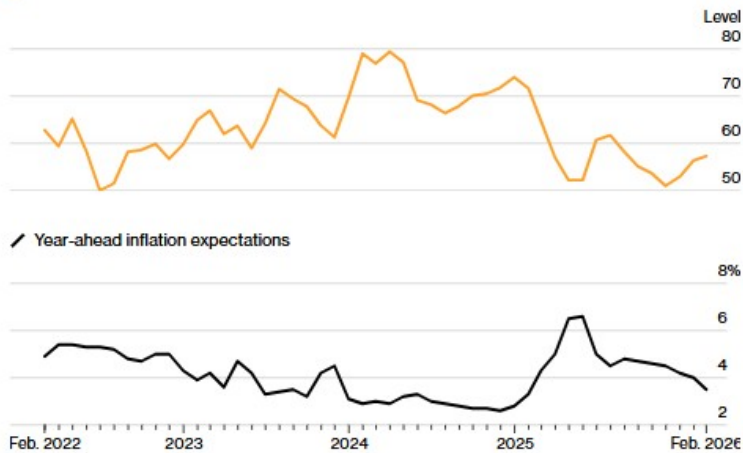
미 2월 소비자 심리지수, 6개월만에 최고치

- 미 소비자 심리지수가 예상치 않게 지난 6개월 만에 가장 높게 상승했다. 이는 주로 부유층이 주식 시장에서 수익률은 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2월 미 소비자 심리 지수의 예비치는 1월의 56.4에서 57.3으로 상승했다고 미시간대는 오늘 금요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 결과는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2일까지 시행된 결과이다. 당초 전문가 전망치는 55였다.
- 이번 보고서는 소비자들이 향후 단기 인플레이 전망에 대해 긍정적으로 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향후 12개월간 연간 인플레이를 3.5%로 전망했는데 이는 지난 1년간 비교해 가장 낮은 수치였다. 장기적인 인플레이 전망치는 높았다.
- 이 같은 심리 지수의 상승은 부유층의 자산 가치와 관련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과 관련해서는 응답자들은 자신이 실직할 확률이 지난 2020년 7월 이래 가장 높다고 보고 있다.

US Consumer Sentiment Rises to a Six-Month High

Short-term inflation expectations fell to one-year low in early February

Consumer sentiment index



Source: University of Michigan

기사

WSJ: Weak Hiring, Layoff Plans Paint a Gloomy Labor-Market Picture

미 고용 약세와 해고로 노동 사정 순탄치 않아

- 지난 12월 미 일자리 공고는 38만 6천 개나 줄었다. 이는 지난 2020년 9월 이래 가장 낮은 숫자로 연방정부 통계는 보여주고 있다.
- 여기다 이번 주에 고용 관련 서비스 업체인 Challenger, Gray and Christmas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 해고 건수는 크게 증가했다.
- 또 어제 목요일 발표된 인력 데이터 회사인 Revelio Labs의 발표에 따르면 1월에 1만 3천3백 개의 일자리가 손실되었다.
- 연방정부의 1월 노동 보고서가 일부 섀다운으로 2월에 나올 예정인 가운데 각종 민간 지표에 따르면 1월 미 노동시장이 둔화하고 있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Bitcoin's Slump Can Worsen as Icy Winter Sets In

7만 불 아래 비트코인, 더 악화할 수 있다

- 비트코인이 심리적인 가격 지지선이 붕괴되면서 6만불 가까이 하락했다. 현재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7만불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고치는 지난 10월 12만6천불이었다.
- 이번 가상 자산의 하락은 2022년에 보였던 급격한 하락을 떠올리게 했는데 매우 혹독한 형태의 '크립토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비트코인의 하락은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나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한 안전자산으로 보는 인식과 그리고 '계속 매수하라'는 단순한 판단 기준 역할을 해왔던 견해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Bitcoin Should Mind the Fibonacci Gap

The crypto currency's drop to \$60,000 is a worry for investors who use technical analysis

Weekly high / Weekly low



Source: Bloomberg

기사

[주택]

Bloomberg: US Mortgage Rates Nudge Higher, Reaching 6.11% for 30-Year Loans

모기지율 상승세...30년 융자 6.11%

- 주택 모기지율이 3주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다가오는 봄철 성수기 전에 주택 비용이 약간 상승하고 있다.
- 30년 융자 고융 모기지율은 6.11%로 지난주의 6.1%에서 약간 상승했다고 Freddie Mac은 어제 목요일 밝혔다.
- 주택 구매 수요는 지난해 거의 7%에서 하락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 그러나 향후 수개월간 주택시장이 성수기를 보이면서 어떤 상황이 될지 주목된다.
- 모든 상황이 순조롭고 모기지율이 6%나 그 이하일 경우 더 많은 매도자와 구매자가 나타나 얼어붙은 주택 시장을 녹일 것으로 보인다.

기사

[자동차]

BloombergL Why Are New Cars So Expensive in the US N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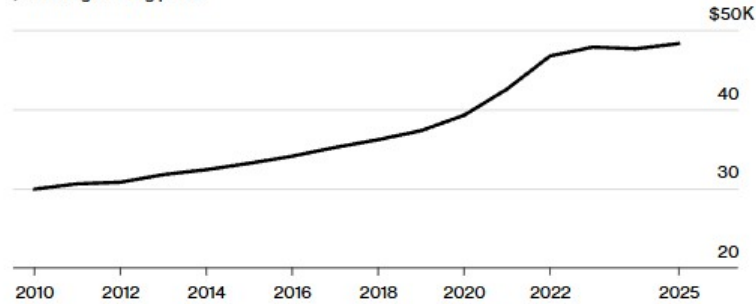
현재 미국에서 신차 가격이 비싼 이유는?

- 평균 미국내 새 자동차 가격은 지난해 9월 처음으로 5만 달러를 넘었고, 12월에는 5만 326달러를 기록했다. Edmunds.com 조사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평균 가격은 61% 상승했다.
- 소득도 증가했지만 구매력은 따라가지 못했다. 2025년 말 기준, 미국 평균 가구 소득으로 신차를 사려면 36.2주치 기간의 임금이 필요했는데, 물론 팬데믹 최고점보다는 낮지만 코로나 이전보다 몇 주 더 벌어야 구입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많은 미국인이 신차를 구입하지 못하거나 더 많은 융자를 지고 있다.
- 이 같은 원인은 우선 EV 판매 증가 탓이다. 신차 평균 가격이 5만 달러를 넘어선 것은 전기차(EV) 판매 증가 영향이 컸다. EV는 일반 차보다 평균 8,000달러 비싸다. 그리고 관세 영향과 관련해 제조사들은 관세 부담을 가

격에 직접 반영하지 않고 흡수하려 했지만, 일부는 소폭 가격 인상을 시행했다.

US New-Vehicle Prices Soar 61% Since 2010

✓ Average selling price



Source: Edmunds.com

기사

CNBC: How America's EV retreat is increasing China's control of global markets

미 전기차는 후퇴...중국은 글로벌 지배력 강화

- 현재 중국의 자동차 산업은 지난 2023년 이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수출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세계 시장에서 전기차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 반면에 미국 자동차 산업은 기존 휘발유 차량으로 오히려 바뀌고 있으며, 기존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관련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기록했다.
- 미국에서 자동차 산업이 GDP의 약 5%를 차지하는 가운데, 기업들은 장기적인 부정적인 여파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기사

Bloomberg: Tesla Weighs New York, Arizona, Idaho to Lift Solar Cell Output

테슬라, 뉴욕 애리조나 아이다호에 태양전지 생산 확대

-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의 100기가와트 태양광 목표의 하나로, 미국 내 여러 지역에서 태양전지 제조를 시작할 수 있는 후보 지역을 검토중이다.
- 이 회사는 뉴욕 버팔로 공장의 생산 확대를 고려 중이며 그리고 뉴욕주 내에 두 번째 시설 건설을 고려 중이며, 애리조나와 아이다호도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다.
- 머스크의 최근 방안은 태양전지 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시장은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

기사

[인공지능]

Bloomberg: Big Tech to Spend \$650 Billion This Year as AI Race Intensifies

빅테크 기업들 올해 AI에 6천5백억 불 투자... AI 경쟁

- 글로벌 빅테크 기업 중 4곳이 새로운 데이터 센터 등을 위해 올해 6천5백억 달러의 자본 지출을 예상한다. AI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 이들 기업은 Alphabet, Amazon.com, Meta Platforms, Microsoft Corp.인데 AI 활동을 위한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
- 이들 기업의 올해 투자액 추정 규모는 지난 3년간 예산을 합친 규모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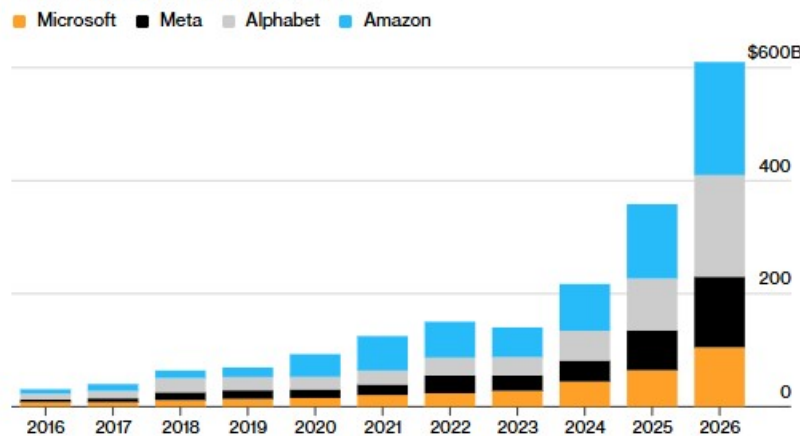
CNBC: Amazon plunges 9%, continues Big Tech's \$1 trillion wipeout as AI bubble fears ignite sell-off

최근 빅테크들의 시가 총액 1조 달러 증발

- 어제까지 증시 하락으로 빅테크들의 시가 총액이 1조 달러 이상 증발했다고 FactSet는 밝혔다.
- 거래자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자본 투자에 대해 우려한 것이 이들 종목의 매도를 부추긴 것이다.
- 빅테크 대부분의 기업인 Microsoft, Nvidia, Oracle, Meta, Amazon, Alphabet 등이 주식이 어제 목요일 크게 떨어졌다.
- 오늘 금요일에는 관련주들이 거의 일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Hyperscaler Capex Explodes Higher

2026 estimates based on mid-point of guidance (META, GOOGL, AMZN), Bloomberg consensus (MSFT)



Source: Bloomberg

Note: Capex based on fiscal year-ends, Dec. (AMZN, GOOGL, META), June (MSFT)

기사

[에너지]

Bloomberg: Oil Falls After Iran Says Talks With US Were a Good Start

오일가 상승세...트레이더들, 미국과 이란 회담 주목

- 서부 텍사스 중질류가 배럴당 63불을 상회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란과 미국과의 회담에 주목하고 있다. 이란 측은 오만에서 미국과의 회담이 좋았다면서 양국은 계속 협상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은 테헤란이 미국과의 핵심 쟁점인 핵연료 농축 종료 거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세계 원유의 약 3분의 1을 공급하는 중동 지역의 긴장이 유가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트레이더들은 지정학적 긴장과 공급 과잉 전망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 오늘 오전에는 오일가는 하락세였으나 기사가 상승세로 바뀌는 등 시시각각 변동성이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KOCHAM | 445 Park Ave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